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 '에이직랜드' 광주 온다

市, 파운드리 대만 TSMC 국내 유일 협력사와 업무협약 조선대·전남대·지스트도 참여...인력양성·취업지원 협력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시가 지역 최초로 팹리스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함께 25일 시청 비즈니스로에서 세계적 주류형 반도체

체(ASIC) 디자인 솔루션 대표기업인 ㈜에이직랜드와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24번째 AI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이사,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김수형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 김상돈 GIST 교학부총장,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오

상진 인공지능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에이직랜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사와 가장 높은 수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협력사(VCA)로 국내 유일 기업이다.

독보적 반도체 설계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과 연계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광주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 앞으로 6년간 100명 이상의 지역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주류형 반도체(ASIC) 설계 디자인 하우스 일자리 창출·운영 위한 광주시 연구개발(R&D)센터 설립 ▲AI·반도체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기술지도 자문 및 취업 프로그램 연계 협력 ▲지역 반도체 기업들과 연계 사업 추진 등이다.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이사는 “협약은 광주가 반도체 및 AI 산업의 핵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광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협력 기관인 조선대학교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다. AI·반도체 후공정 분야 고도화에 따른 첨단 패키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내 파운드리 및 OSAT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대학교는 2019년 전국 최초로 AI 융합대학을 설립하고 2021년 데이터사이언스전문대학원을 개원하는 등 인공지능(AI) 실무 인재와 연구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IST는 반도체공학과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공정·시스템, 설계·시뮬레이션, 신뢰성 테스트·분석 등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스트에 차세대 반도체 첨단공정 팹(2026년 완공)을, 전남대학교에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2027년 완공)를 구축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에이직랜드를 유치해 팹리스 팹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게 됐다”며 “지역 혁신기관 및 대학이 함께하는 기술 개발, 인력 양성으로 반도체 산업의 희망의 꽃을 피우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남 등록외국인 비율 전국 5위...‘전남형 이민정책’ 절실

5만4천여명 거주...인구정책 대안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성 커져

전남지역 등록외국인 비율이 전국 5위를 기록했다. 22개 시·군 중에서는 대형 조선소가 있는 영암군에 1만여명 이상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감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형 이민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연구원은 25일 JN1 인포그래픽 ‘어서와, 전남은 처음이지?’를 통해 전남 거주 등록외국인 현황을 시각화해 발표했다.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겨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체류

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법무부가 올해 7월 발표한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 수는 약 142만명(전체 인구의 약 28%)이며 전남은 약 5만4천명(전남 인구의 약 30%)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 내 전체 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2021년 11위에서 2024년 5위로 급등했다.

전남 시·군별 등록외국인 수는 영암군이 1만4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수시(7천273명), 목포시(4천858명)

순이다. 등록외국인 비율은 영암군 20.1%, 완도군 10.1%, 진도군 8.1% 순으로 높았다.

전남 등록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 56.8%, 정주 28.9%, 유학 10.4% 등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취업 목적의 등록외국인 수가 많았다. 반면, 순천시·광양시·구례군은 정주 목적이 많았다.

김현민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전남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근로자가 많고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등 단순 기능인력이 많은 편”이라며 “장기적으로 전남의 산업 환경과 구조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 및 숙련 근로자 유치 계획을 포함한 전남형 이민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판 출석 해병대 체포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법 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도, 외국인 비자 개선 시책 성과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 우수상...인력난 해소 인정

전남도는 25일 “대구 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예선·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전남은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 2023년 행안부 주관 전남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와 법무부장관과의 이민정책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주요 개선 사례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8개월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가능토록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 5년→4년 단축 ▲외국인 고용비용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인력(E-7) 고용 비율 산정기준 개정 등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2023년 전국 8천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78% 증가한 4천5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기여했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7천221명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

해남 데이터센터 투자 실현 탄력 전망

농림부, 영산강 국가간척지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반영

전남도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간척지의 농업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2029년까지 영산강 지역 국가간척지에 500ha 규모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검토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이 필요한 경우 국가간척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한 결과다.

영산강 지역 시범사업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 영농형태양광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생에너지100

(RE100) 산단 등 집단화된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에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군 산이·마산 영농특화단지 영농형태양광은 주민이 지역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먼저 제안한 사업으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고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에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을 통해 대규모 첨단산업 유치 등 투자 실현 이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면 ‘무적자’서 계속

이번 소송을 맡은 송창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부부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평생 제도권 밖에서 살아온 A씨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A씨의 특청후견인인 윤하연 영광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팀장은 “만감이 교차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힘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빠른 시일 내에 A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유동 로타리 대로변 코너 최고요지 상업지228㎡
급매10억3,000 (면적 추가가능)

광주역 6차선 대로변 상업지 대지479㎡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주차6대 급매 14억9,000(커피카페,음식점,전시장등 뒤편 최적)

광주역 코앞 상업지 대지534㎡ 6층1,145㎡ 승강기1 주차16 스프링클러, 병원기준완비, 의료장비도 비치, 병상7개
급매 26억8,000(조정가/임대도가능)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임대, 임대, A/S

T.375-588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